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 운영

- ‘응급톡톡’,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및 ‘이젠(E-Gen)’ 누리집 통해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제공 -
-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의심 땀 119로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계획)>

(단위: 개소)

구분		9.24.(목)	9.25.(금) 추석	9.26.(토)	9.27.(일)	일평균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기관	소계	416	416	416	416
		권역응급의료센터	44	44	44	44
		지역응급의료센터	139	139	139	139
		지역응급의료기관	233	233	233	233
	응급의료시설		113	113	113	113
	병원		738	341	661	580
	의원		3,845	1,240	2,670	2,585
	보건소 등		291	227	159	217
	문 여는 약국		6,378	2,894	4,453	4,383
총 계		11,781	5,231	8,472	7,689	8,294

① 연휴 기간 아플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면 된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받을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②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 ‘응급 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 및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도 콜센터(120) 유선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이젠, E-Gen) 주소: www.e-gen.or.kr

특히, 사용자는 ‘응급똑똑’ 앱을 통해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연휴 기간 중에도 응급의료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 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에 대한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운영한다.

*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10개(63개소 참여), 전문의 간 협력체계 56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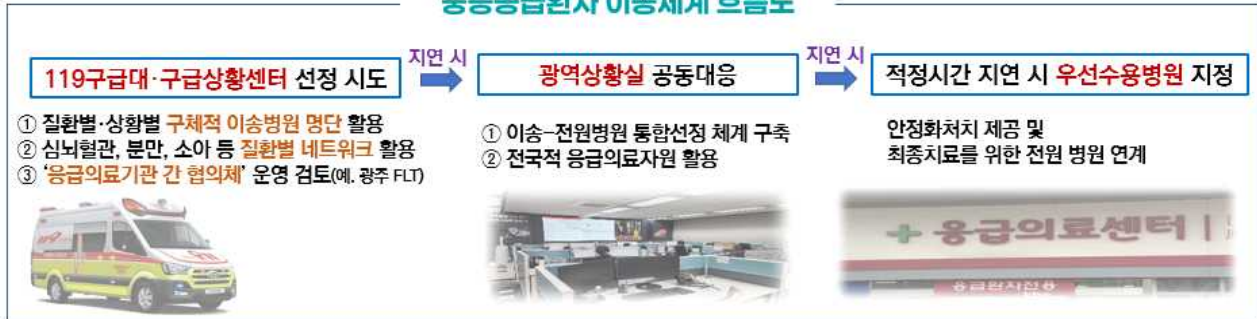
또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진료 가능한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서도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까지 찾아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흐름도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 붙임 >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

담당 부서	공공의료정책관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허기열 (044-202-2558)

이럴 땐 119!

성인



얼굴

- 얼굴반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지친
- 방긋 웃으면 입이나 얼굴 한쪽이 비뚤어짐
- 혀가 마비되어 말을 하기 어려움 (이상한 말을 함)
- 시야가 좁아지거나 갑자기 사물이 이중으로 보임
- 안색이 너무 나쁨

머리

-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
-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기대지 않고는 서있을 수 없음

가슴, 등

- 갑작스런 극심한 흉통이나 등의 통증이 지속 (조이거나, 압박하는 듯한, 찢어지는 듯한 통증)
- 심한 알막임, 호흡곤란
- 어깨나 목, 턱으로 뻗는 듯한 통증 동반

손발

-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음

배

- 갑작스런 극심한 복통 (허리를 펼 수 없는 통증 등)
- 극심한 복통이 지속
- 피를 토하거나 변에 피가 섞이거나 새까만 변이 나오는 경우

소아



얼굴

- 입술 색이 보라색
- 안색이 매우 나쁨

머리

-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경련(팔다리를 떨거나 마비)
-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졸혈이 멈추지 않음
- 의식이 없음 (흔들어도 반응이 없음, 불려도 대답이 없음)

가슴

- 극심한 기침이나 헛떡거림으로 가슴이 들쭉거리고 숨쉬는 게 힘들어 보임
- 숨실때 이상한 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음
- 숨이 막힘

손발

- 손발이 경직되어 있음

배

- 극심한 설사나 구토로 식욕이 없으며 수분섭취를 하지 못하고 속물어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음 (불러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 극심한 복통으로 울거나 힘들어하며 달래지지 않음
- 멈추지 않는 구토
- 변에 피가 섞여 있음

고령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와 다르거나 상태가 이상하면 각별히 주의하세요.

의식장애

- 의식이 없음(대답이 없음) 또는 이상함 (동통함)
- 축 늘어져 있음

경련

- 멈추지 않는 경련(몸이 뻣뻣해지거나 떠는 경우)
- 경련이 멈췄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

구토

- 오한과 땀을 동반한 강한 구역질(오심/구토)

두드러기

- 벌레에 물리거나 약을 먹고 전신에 두드러기, 호흡곤란 발생, 안색이 좋지 않음

상처나 화상

- 멈추지 않는 출혈이 있는 상처
- 광범위한 화상

사고

- 교통사고를 당함(강한 충격을 받음)
- 물에 빠져 건졌으나 다량의 물을 삼킴
- 높은 곳에서 추락

실신

-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음

부모가 보기에 평소와 다르거나 상태가 이상하면, 특히 생후 3개월 미만 아기는 반드시 주의하세요

의식장애

- 의식이 없음(대답이 없음) 또는 이상함 (동통함)
- 축 늘어져 있음

경련

- 멈추지 않는 경련(몸이 뻣뻣해지거나 떠는 경우)
- 경련이 멈췄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

실신

-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음

두드러기

- 벌레에 물려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안색이 좋지 않음

상처나 화상

- 멈추지 않는 출혈이 있는 상처
- 통증이 심하거나 광범위한 화상

사고

- 교통사고를 당함 (강한 충격을 받음)
- 물에 빠져 건졌으나 다량의 물을 삼킴
- 높은 곳에서 떨어짐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죠?



미리 저장해두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가이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5 -

추석 연휴에 아플 때



중증 의심?
(극심한 흉통, 의식 저하 등)

즉시 119 신고
→
(구급차 요청·안내)

응급의료센터 등 방문

중증인지 경증인지
에매할 땐?

119 응급의료상담
→
(응급복지 앱, 아이언심톡 이용)

상담 후
적합한 의료기관 방문

가벼운 경증 증상일 땐
(단순 열파, 소화 불량, 가벼운 감기 등)

문 여는 병·의원 찾기
→
(응급복지 앱)

당직 병·의원,
응급의료시설 등 방문
(대형 응급실 지양)

문 여는 병·의원 우선 방문 ▶



손가락 배임, 두피나 얼굴에 알은 상처(뺨어짐),
두드러기, 복통/두통, 열/인후통, 가벼운 화상 발생 시에는
문 여는 병·의원을 우선 방문해 주세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한 4가지 약속



명절 음식은 조금씩 나눠 드세요.



장거리 운전 전후로 반드시 휴식하세요.



조리 중 칼, 뜨거운 기름 화상 사고 주의하세요.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에게



경증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아니며,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치료를 받거나
증상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해도 되는 경우

중증

심각한 부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초응급 상황

경증응급(비응급)

- 요로감염 증상
(가벼운 배뇨통)
- 변비(심하지 않은 통증)
- 발열을 동반한 복통
- 두드러기
- 설사(탈수 증상 없음)
- 심하지 않은 복통/두통
-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 알은 열상, 상처 소독
- 약 처방

중증응급(위급)

- 혈액이 섞인 구토
- 극심한 흉통/복통/두통
- 중증 외상
(여러 부위 골절을 동반한
열린 상처 등)
- 중증 외상(쇼크)
- 중증의 호흡곤란
- 의식장애
- 심장지



【문 여는 병·의원 방문】

- ① 당직 병·의원
- ② 응급의료시설
- ③ 지역응급의료기관



119 신고 및 상담 후
응급의료기관 방문

경증이란?



이런 증상은 "경증"입니다.
문 여는 병·의원을 찾아주세요



경미한 증상



단순 열파



두드러기



가벼운 상처



구토 설사, 가벼운 복통

문 여는 병·의원·약국
이렇게 찾으세요



"응급복지 앱" 검색 및 설치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지역번호)120